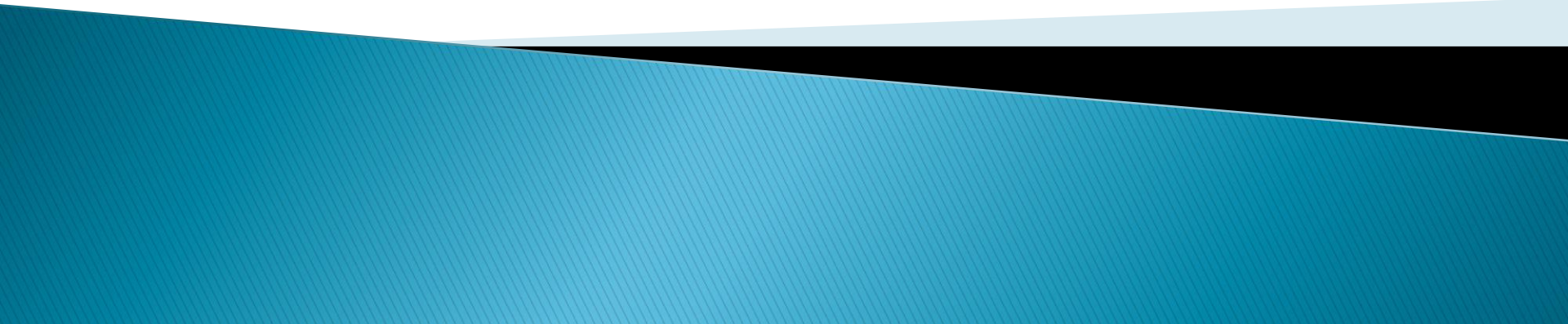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2주차 수업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중요한가



★ 수업 목표

-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 인간의 삶에서 자기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 인문학 가운데 철학은 인간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도모하는 근본적 성격의 학문임을 이해한다.

★ 차례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2. 철학, 인간을 말하다
3.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다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scale)와 <생각해보기> 적어보기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평가적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이 높고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며, 삶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으며 강점보다 약점을 크게 부각시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James Marcia's Identity Statuses

-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형성수준의 개인차를 진단하는 개념. 정체성 위기 (Crisis) 경험과 몰입(Commitment)의 경험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됨
- 위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였는가?
- 몰입: 진로, 가치관에 있어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가?
- 정체성 성취(Achievement): 위기와 개입 모두를 경험함
- 정체성 유실(foreclosure): 개입은 경험했지만, 위기의 경험이 없는 경우
- 정체성 유예(Moratorium): 위기는 경험했지만, 몰입이 없는 경우
- 정체성 혼미(diffusion): 위기와 개입 모두를 경험하지 못함.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James Marcia's Identity Statuses

정체성 확립 위기 ○, 몰입 ○	정체성 유예 위기 ○, 몰입 ×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한 목표, 신념, 가치에 대해 전념할 수 있는 답을 찾은 경우. 정체성 성취에 속한 청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자존심의 상처를 덜 받고,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음	자기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아직 특별한 목표에 몰입(전념)하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임. 이 경우 청년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높게 나타남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James Marcia's Identity Statuses

정체성 유실 위기 ×, 몰입 ○	정체성 혼미 위기 ×, 몰입 ×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답을 찾은 경우. 현재 상태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진로탐색이 부모나 주변의 권유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기에 언제라도 정체성 혼미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주변의 모범생 케이스. 권위에 높이 의존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취약한 반응을 나타냄. 언제든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위기에 대한 경험도, 어떤 선택에도 관여(몰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업, 가치관 등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고,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도 적절한 활동이 없는 경우. 일종의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대학생 학년별 행복도

◇학년별 대학생 행복도 (자료=지속가능바람)

학년 (단위:점)	현재	5년 후
1학년	70.74	68.44
3학년	68.08	72.61
4학년	67.26	76.26
2학년	65.01	72.92
4학년 초과	64.91	78.40
휴학	60.30	73.73

출처: 2018 대한민국 대학생 행복도 조사(한국 CSR연구소)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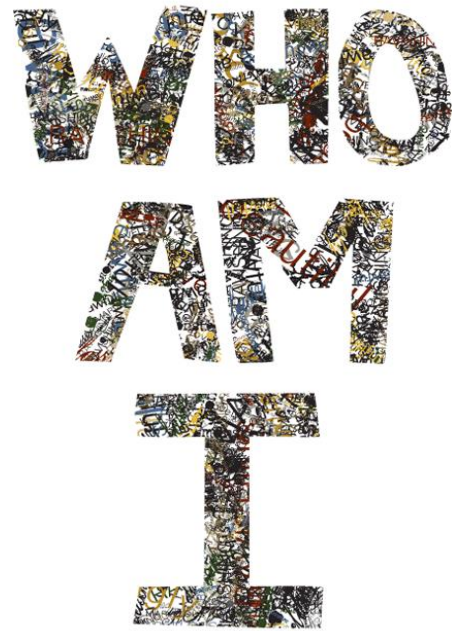
“지각, 판단, 차별적 감정, 정신 활동, 나아가 도덕적 기호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의 능력은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관습에 따라 행동할 때는 선택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경우, 사람들은 최선을 분별하는 것에서 경험을 쌓을 수 없다. 정신과 도덕도 근력과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좋아진다. (...) 내 인생 계획을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을 바라는 사람은 유인원처럼 흉내 내는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 밀의 『자유론』 가운데서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나도 잘 모르는 내가 있다.”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 욕망과 무지 속에서 나를 만나다

“아주 먼 옛날,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나운 코끼리가 나타나 그를 공격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마른 우물 속에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우물 곁의 큰 등나무 뿌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닥을 보니 독룡(毒龍)이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깜짝 놀라 나무뿌리에 매달려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에서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대며 노려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가 이번에는 위를 쳐다보니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뿌리를 흰쥐와 검은 쥐가 갹아먹고, 코끼리는 여전히 날뛰고 있었다.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 욕망과 무지 속에서 나를 만나다

벌판을 휩쓰는 맹렬한 들불은 등나무를 태우기 시작하고,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의 온 몸을 쏘아댔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 뭔가가 떨어져 그의 입속으로 흘러들었다.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도 잊은 채 다섯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꿀을 받아먹는 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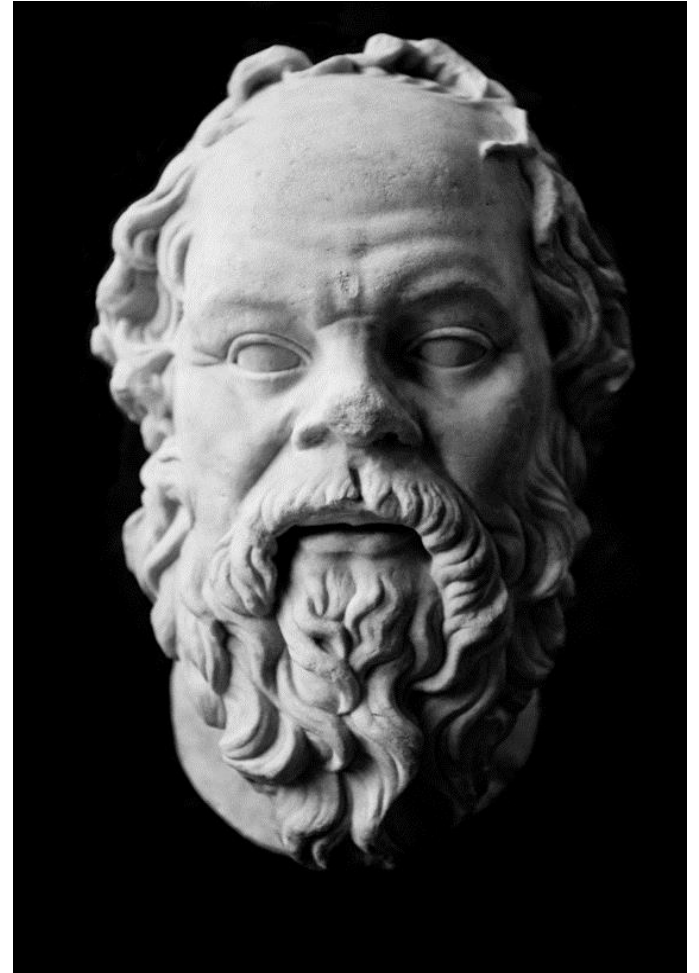
—『불설비유경』, 「우물가 등나무(井藤)」비유

2. 철학, 인간을 말하다

“너 자신을 알라”

(Gnoti Seauton)!

— 소크라테스



2. 철학, 인간을 말하다

“인간은 바닥이 없는 심연과도 같은 존재”

— 아우구스티누스



2. 철학, 인간을 말하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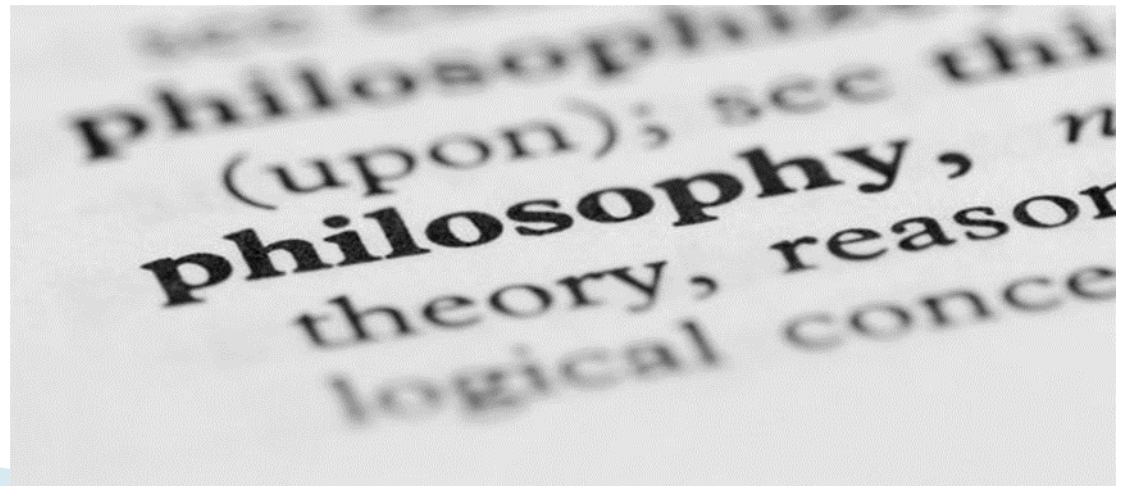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 칸트(I. Kant)



2. 철학, 인간을 말하다

-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자신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 철학적 물음은 일종의 주체(나)의 물음이다. 따라서 철학은 나(주체)의 결단을 이끄는 세계관이다.



3.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다

★ 사람을 뜻하는 단어

- 사람: '살'(살다의 용언) + '암'(존재를 뜻하는 명사형 접미사), 즉 살아가는 존재
- Mensch (G), mens (L): 생각, 정신
- anthropos (G) : 주의 깊게 살펴보고 따져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 homo (L): humus (흙, 대지)
- adam (H): adama (흙, 땅)

3.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다

-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 존재는 '이미 규정된 존재'로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존재에 불과함
- 인간의 진면목은 자각적 주체성, 자유의 실현에 있음
- 자기를 잃지 않고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은 역설적 성격을 지님

3.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유의 불이 지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한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다. 선인들이 ‘명’(命)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아난케’(Ananke)라는 말을 썼을 때도, 그것은 신들이 준 필연이자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간의 조건’이었다. 인간은 털끝만한 자유를 지키고 넓히려고 몸부림친다. 이러한 몸부림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 인간의 정체성은 역설적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정체성은 곧 자신에게 필연/동일성으로서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려는 운동, 즉 자유이기 때문이다.”

— 이정우, 『인간의 얼굴』 가운데서

3.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묻는 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답하는 자이다.”

